

연승 타이거즈, 시리즈 첫 스윙 노린다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 6일 키움전에서 9회말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키움 5-3으로 잡고 2연승...정해영 완벽 세이브

KIA가 연승으로 어린이 날 연휴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KIA 타이거즈가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5차전에서 5-3 재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장단 15안타로 13-1 대승을 기록했던 KIA는 정해영의 완벽 세이브로 연승을 기록했다.

선발 김도현이 초반 난조에도 6이닝을 3실점으로 버티면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1회초 1사에서 위즈덤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김도영과 최형우의 연속안타로 3루로 향했다. 이어 김선빈의 희생플라이로 위즈덤이 홈에 들어오면서 KIA가 선취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김도현의 출발이 좋지 못했다.

앞선 6번의 등판에서 6개의 볼넷만 기록했던 김도현이 1회말 시작과 함께 송성문, 최주환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했다. 카디네스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1사 2·3루, 푸이그의 2루 땅볼 때 송성문이 홈에 들어오면서 1-1이 됐다. 김도현은 김태진의 좌전적시타로 1-2 역적을 허용했다.

2회초 KIA도 상대의 제구 난조를 놓치지 않았다.

1사에서 정해원이 볼넷, 박정우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박찬호의 볼넷을 더해 1사 만루를 만든 KIA는 위즈덤의 좌중간 적시타로 3-2를 만들었다.

김도영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한 KIA가 5회 다시 동점을 허용했다.

3·4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김도현이 5회말 선두타자 이용규를 우측 2루타로 내보냈다. 김도현이 송성문과 최주환의 방망이를 연달아 헛뜰게 하면서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카디네스에게 우전 안타를

맞아 세 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6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김도현은 삼자범퇴로 이닝을 끝내면서 6이닝(93구) 4피안타 3볼넷 5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3-3으로 맞선 7회, 전상현을 시작으로 KIA 볼펜이 가동됐다. 위기는 있었지만 실점은 없었다. 전상현이 대타 임병욱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했지만 이용규를 3구 삼진으로 잡고, 이준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준영은 송성문과의 승부에서 1루 직선타를 만들었다. 스타트를 끊었던 1루 주자 임병욱까지 동시에 잡아내면서 7회가 실점 없이 마무리됐다.

이어 8회초 KIA가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선두타자 오선우가 박윤성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다. 한준수의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이범호 감독이 정해원을 대신해 김규성을 대타로 투입했다.

번트 자세를 취했던 김규성은 2구째 타격에서 강공으로 전환, 전진 수비를 하고 있던 키움 내야를 넘겨 우전 적시타를 장식했다. KIA는 바뀐 투수 윤현의 폭투로 1점을 더하면서 5-3을 만들었다.

8회에는 조상우가 마운드에 올랐다. 조상우가 2사에서 푸이그와 김태진에게 연속 안타는 내줬지만 어준서를 2루 땅볼로 잡고 리드를 지켰다.

그리고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이 투입됐다.

정해영은 이형종을 3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처리했고, 임병욱은 5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김재현을 3구째 유격수 땅볼로 잡고 8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정해영의 완벽투로 '워닝시리즈'를 확보한 KIA는 7일 황동하를 선발로 내세워 스윙에 도전한다. 키움에서는 케니 로젠버그가 선발로 출격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양현종

양현종·최형우 '어린이날' 새 역사 썼다

양현종, 리그 첫 2100 탈삼진·두 번째 180승

최형우 역대 4번째 400홈런... '최고령' 기록도

KBO 175경기만에 300만 돌파...광주 31만명

어린이날이 '기록의 날'이 됐다.

KIA 타이거즈 투-타의 '만행' 최형우와 양현종이 지난 5일 KBO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최형우는 이날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4차전에서 4안타 맨타를 휘두르면서 13-1 대승의 주인공이 됐다.

2회 선두타자로 나와 좌중간 2루타로 공격의 물꼬를 튼 최형우는 6회에는 승부에 췌기를 박는 스리런도 장식했다.

무사 1·3루에서 윤석원의 초구 141km의 직구를 공략한 최형우는 중월 스리런을 장식했다. 이와 함께 최형우는 KBO 리그 역사상 4번째 400번 홈런 주인공이 됐다. 앞서 이승엽 두산 감독, 최정(SSG), 박병호(삼성)가 400홈런을 넘었다.

최형우는 41세 4개월 19일에 기록을 완성하면서 이승엽의 최고령(38세 9개월 16일) 400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양현종도 이날 시즌 7경기 만에 첫승을 신고하면서 송진우에 이어 KBO 리그에서 두 번째로 180승 고지를 밟았다.

6이닝 5피안타 2볼넷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한 양현종은 화끈한 타선 지원 속에 시즌 첫승과 함께 통산 180승을 완성했다.

양현종은 2100탈삼진 기록도 세웠다. 이날 경기 전까지 2097개의 탈삼진을 장식했던 양현종은 5개의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2100탈삼진 첫 주인공이 됐다.

관중석에서도 기록이 만들어졌다. 이날 KIA와 키움이 맞붙는 고척스카이돔에

만원 관중이 들어서는 등 5개 구장에 9만 1434명이 입장했다. 이와 함께 올 시즌 KBO 누적 관중은 306만 1937명이 됐다. 175경기 만에 이뤄진 300만 관중 돌파로 역대 최소 경기 기록이다. 앞선 기록은 2012시즌의 190경기다.

연휴 마지막날인 6일에도 4개 구장에서 매진이 기록되는 등 8만 9162명이 입장, 올 시즌 KBO 누적 관중은 315만 1099명이 됐다.

구단별로 보면 삼성이 홈 22경기에 50만 9312명을 동원해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50만 관중을 넘겼다. 관중 2위는 LG로 19경기에 42만 928명이 찾았다.

지난 시즌 1위 질주를 하면서 KBO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견인했던 KIA는 초반 성적 부진으로 관중수가 소폭 감소했다.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 19경기 누적 관중은 31만 5839명(9경기 매진)으로 지난해 32만 1885명에 비해 6046명(-2%) 줄었다. 평균관중도 1만 6941명에서 1만 662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김경민 '선방쇼'

5개 유효슈팅 모두 막아내며 김천상무FC에 1-0승



'수문장' 김경민이 광주 FC의 승리를 지켰다.

광주FC가 지난 5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김천상무FC와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전반 15분 오후성의

페널티킥골로 침묵을 깬 광주는 후반 막판 거세게 전개한 상대의 공세를 막으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광주의 질주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승리다.

광주는 지난달 26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알 힐랄과의 경기에서 0-7 대패를 당한 뒤 2일 울산 원정에서도 0-3으로 졌다. ACLE 강행군 뒤 분위기가 반전이 필요했던 광주는 김경민의 선방쇼로 값진 승리를 만들었다.

이날 1개의 슈팅을 날리는 데 그친 광주와 달리 김천상무는 8개의 슈팅으로 광주를 압박했다. 이중 5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지만 김경민이 이를 모두 봉쇄하면서 승리를 완성했다.

행운의 여신도 광주 편이었다. 첫 골은 김천상무가 가졌기는 못했다.

전반 12분 김천상무 이승원이 골대 왼쪽에서 시도한 헤더가 바운드 되면서 광주 골대 안으로 향했다.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앞선 광주의 공격 상황에서 페널티 지역에서 시도한 오후성의 슈팅이 김천상무 박승욱의 팔에 맞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서, 골은 무효가 됐고 오히려 광주에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키커로 나선 오후성은 상대 골키퍼를 속이고 오른발로 골대 오른쪽을 뚫으면서 시즌 3호골에 성공했다.

38분에는 하승원이 문전까지 진입해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키퍼에 막히면서 1-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선제골은 광주 차지가 됐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김천상무가 주도했다. 덕분에 가장 바쁘게 움직인 선수는 골키퍼 김경민이었다.

후반 14분 상대의 프리킥 상황에서 박수일의 대표알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김경민이 뛰어 올라 공을 쳐 냈다.

후반 18분 위기 상황에서도 김경민이 공을 낚아채 김승섭을 막았다. 김경민은 후반 24분 역습 상황에서 김승섭의 슈팅을 저지하고 박수를 받았다.

6분의 후반 추가 시간에도 김경민이 여러 차례 몸을 날리면서 광주 골대를 굳게 지켰다.

"홈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기는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다. 피곤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힘든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고 싶다"며 선수들의 투지에 박수를 보낸 이정효 감독은 "김경민 칭찬 많이 해주고 싶다. 김경민 덕분에 이겼다고 생각한다. 뒤에 수비라인에서 열심히 뛰 선수들 칭찬해 주면 좋겠다"고 김경민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경민은 눈부신 선방으로 승리를 이끌었지만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광주FC와 김천상무프로축구단과의 경기에서 광주FC 골키퍼 김경민이 팀원들과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김경민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나와 줘야 했는데 못 나와줘서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이 한 경기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면 안 된다. 부족한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발전해야 한다. 이 경기가 끝이 아니다. 다음 전복하고 홈경기가 있다. 전복만은

꼭 잡고 싶다. 상대 분위기가 좋고 좋은 선수들도 있다. 꼭 잡을 수 있게 내 위치에서 준비 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6238명이 입장한 이날 수비수 김진호는 통산 100경기 출장을 이뤘다.

지난 시즌 강원에서 이적한 김진호는 첫해 36경기 나와 주전으로 자리를 굳혔고, 올 시즌에는

'부주장'도 맡아 그라운드 안팎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뛰고 있다.

김진호는 "1경기 1경기 최선을 다했는데 벌써 이렇게 100경기가 됐다.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게 매 경기 최선을 다해 200경기, 300경기 계속 이루겠다"며 "100경기 날 승리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